

讀書의 環境

——특히 讀書의 場을 中心으로——

梁 泰 鎮

國立中央圖書館 司書官

1. 序 言

讀書가 우리의 生活에서 빼 놓을 수 없는 必要要件이라함은 再論을 要치 않는 것으로 讀書環境이 적절히 조성될 때 비로소 讀書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讀書의 意味를 좀 더 學論하여 보고자 한다.

英國의 有名한 수필가요 철학자인 Francies Bacon의 말을 빌리면 讀書를 反對나 論駁하기 위하여 서라던가 또는 話術을 넓히기 위하여 읽지 말고 事物을 생각하고 그 內容을 吟味하고 消化하기 위한 冊을 읽도록 하라고 하였다¹⁾. 이 말은 오늘 날 우리가 讀書의 概念을 定立하는데 指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좀 더 분석하여 보면 이제까지 흔히 취미가 무엇이나고 묻는 질문에 其實 독서를 하던, 하지 않던 서슴없이 讀書라고 對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의 주위에서 보게 된다.

그러나 讀書란 單純히 취미만을 위한 것이거나 여가를 소일하기 위한 것이 여서는 않된다.

即, 讀書는 우리가 겪지 못한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독서라는 媒體를 통하여 경험을 體得하고 그 경험속에 담긴 諸般 要因들을 우리가 생활하여 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消化 吸收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풍요하게 하고 올바른 人格形成에 밑거름이 되며 나를 떠난 사회와 國家에 有益을 주도록 人格涵양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다.

이제 讀書라고 하는 것이 취미 위주의 책 읽기가 아니라 國民精神의 계몽과 文化傳達の 根幹임을 간주할 때 讀書를 자극할 수 있고 誘導해 나가는 讀書環境을 最大限 造成해야 할 것이다.

2. 讀書의 本質

讀書의 本質이 무엇이나고 하는 때는 어떤 文獻에도 그 定說을 찾을 수가 없다. 讀書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것이다. 即, 讀者의 身分에 따라 千態萬象 다른 것이다.

同一한 冊을 보드라도 그 보는 이의 계층에 따라 받

아 들여지는 感度는 다르기 때문이다.

活字화된 文章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는가 하면 著者의 意圖를 充分히 理解하고 파악하여 著者의 思想에 동조내지 反對할 만한 감상력이 설때에 비로소 著者가 의도하는 가장 바람직한 讀書를 하는 讀者일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自然히 그 著者의 內容을 熟知할 수 있는 著書를 찾지 마련이요. 해독하기 어려운 책이라든가 너무도 水準이 낮은 著書들은 適書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讀書의 本質이라고 한다면 읽고 싶은 책을 자기의 知的 水準에 알맞게 선택하여, 읽고 싶은 층동이 일어 날 때에 읽어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 活用하여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3. 讀書의 領域

讀書라고 하는 것이 人間 文化의 蓄積, 授受, 繼承, 發展을 위한 基本的 道具로서 冊은 독서행위를 當연한 前題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읽히지 않는 冊은 美術品이나 장식물은 될 지언정 結局 本稿에서 論하는 冊은 아니다. 말하자면 독서행위는 책을 책다움게 하는 불가결의 要素라 하겠다. 그런데 독서의 영역을 어느 범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至難한 問題이다.

讀書란 文字 그대로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冊의 構成要件을 들고 그 形態나 內容을 區分하여 도서의 定義를 내려야 하나 쉽사리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회승 편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독서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책에 대한 설명을 “어떤 사상이나 사항을 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겹쳐서 페넨 물질의 총칭이라고” 하였다²⁾.

이는 광의의 독서를 일컫는 것으로 본고에서 논하는 협의의 독서는 아니다. 협의의 독서라고 한다면 의사나 기술자가 그 직업을 위한 의학 및 기술서적을 읽는

1) Francies Bacon. Essays of Counsels Civil Moral.

2) 이회승편. 국어대사전. p. 74.

3) 이회승편. 국어대사전. p. 2777.

다거나 대학교수가 내일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라든가 학생들이 시험준비를 하는 것 등은 협의의 독서 영역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독서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신 生活을 풍요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여 주는 교양서를 읽는 것으로 독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

물론 敎養書라고 하는 定義에 異論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추후에 說明키로 하겠다. 이러한 교양서를 읽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叢書의 選擇이 必要하다.

많은 冊을 다치는 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들 중 가장 유효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의 낭비없이 읽어야 할 것이다.

천줄 만줄로 쓰여진 두터운 책의 내용이 그 모두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단, 한줄의 글이라도 정말로 감명을 주는 것이라면 죽히 그 책을 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는 열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이라면 단 한번도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새로 나온 책은 읽지 말고 삼년이 지난후에 읽으라고 하는 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教訓을 鐵則으로 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책이 그 어느 한 귀결로 한결같이 우리의 정신생활속에 살이되고 뼈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발간한 즉시 읽지 말고 수년이 지난 후에 읽으라 함도 책의 생명이 유한한 것인가를 잘 파악하고 선택하여 읽으라 함이다. 날로 발전하여 가는 과학서나 시사성을 다룬 것은 論外일 것이기 때문이다.

4. 세계 각국과 대비한 우리 나라 讀書狀況

우리 나라 국민의 讀書狀況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明確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확을 기했다고 할만한 全國的인 讀書實態週查가 없기 때문이다.

近年(1971년 9월)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全國에 걸쳐 우리나라 쉐러티맨의 독서근황을 調查하였는데 귀하는 때에 돌아가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하는 設文에 텔레비전을 본다는 사람이 34%로 最高이며 신문을 본다는 사람은 13%로 4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중 讀書를 한다는 사람은 겨우 9%로 5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루에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는 시간은 겨우 30분 내외로 신문을 읽는 사람이 44%이고 60분내외로 읽는 사람이 26% 90분 이상은 3%에 불과했다. 30분 내외로 텔레비를 보는 사람은 27% 60분 내외로는 24% 90분 이상은 37%이다. 이 조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직

장인들이 귀가후 텔레비전을 보는율이 34%인데 반해 책을 읽는 사람은 9%라는 극히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⁴⁾. 비록 이 조사가 어느 만큼의 信賴度와 타당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고사하더라도 오늘 날 우리가 처해 있는 現實은 映像文化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活字文化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은 事實이고 보면 우리의 독서환경은 또 하나의 難題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972년 불란서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최 세계 편집자 회의에 소개된 독서통계에 의하면 지난 71년 중 小冊字 한권이라도 읽은 成人의 數는 오란다가 最高로 이는 100人中 66명이 책을 읽었고 英國인이 63人이며 불란서인이 56人이며 西獨人은 52人이며 스페인은 40人이고 포르투갈은 28人이며 이태리는 24人이라고 되어 있다⁵⁾.

1970年度 日本의 경우 만 16세 이상의 국민중 잡지나 서적을 읽지않은 사람은 27.7%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53%로 그 수준은 대체로 불란서와 비슷하다고 하였다⁶⁾.

70년 現在의 出版量도 대체로 朝鮮을 제외한 유럽은 인구 100萬人當 35점이며 아시아는 49점 남아메리카는 79점 아프리카는 23점이다.

말하자면 아프리카인은 유럽인의 $\frac{1}{25}$ 에 불과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⁷⁾.

그렇다고 하여 유럽인은 독서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고 하는 見解를 UNESCO 전 사무국장 마 우씨는 말하고 있다⁸⁾.

그는 최근의 불란서 世論研究所(IFOP)가 조사한 결과를 들면서 불란서人中 53%가 비독서층이라고 하며 이러한 數字는 예상의외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출판사업의 번영이 반드시 책이 개개인의 생활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데⁹⁾ 책을 어떻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할 것인가는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5. 讀書의 場

讀書環境中 가장 重視되는 것이 讀書의 場이라 하겠다. 1970년에 실시한 人口 및 주택센세스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住宅事情은 557만 6,227가구에 주택

4) 朴武昇. 世代. 1971. 11月號 “活字文化는 終末을 告하는 가” pp. 51~57.

5) 리베 마우. Books for All. UNESCO 72. 3月號 p. 5.

6) 로렌 에스칼피. 出版革命. p. 6.

7) 清水英夫. 現代出版學. p. 52.

8) 前掲書. p. 49.

9) 에스칼피. 現代人はどのくらいの本を讀よが UNESCO CO. 3月號 p. 12.

主要都市住宅不足數

都市別 區分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32個市計
人口數(人)	5,422,735	1,838,746	1,061,462	636,281	473,006	406,293	137,091,513
家口數	1,029,483	352,090	200,431	120,051	84,132	70,665	3,377,179
家口員數(人)	4,177	4.85	4.82	4.93	5.19	5.27	4.88
住宅數(套)	574,321	2,043,090	99,672	71,373	47,809	40,754	1,378,715
不足數(套)	455,162	148,000	100,759	48,678	36,323	29,911	988,464
不足率(%)	44.21	42.03	50.27	40.55	43.17	42.33	42.00

수가 443만 4,494채로서 不足數는 124만 1,783채로 22.27%의 不足率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住宅數의 不足狀況은 대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위와 같다.

이러한 통계는 60년대 초보다 매우 악화된 것으로 主要原因은 1,2次 5個年 계획 기간에는 基幹産業의 시설에 투자가 어느 다른 部門의 投資보다 우선 하였을 뿐 아니라 人口의 증가 核家族化 人口의 都市集中化 등으로 新規需要가 급증하여 매년 건설하는 주택수가 新規發生需要를 카바하지 못한 탓이다. 이나마도 기존의 주택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주택의 평균 棟當規模는 15평 이하의 住宅이 총 주택수의 65% 가량이 된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 비록 기호에 알맞고 위생 시설이 완벽하다 해도 최소 주거면적에 대부분이 미달하여 이상적인 주택으로는 간주 될 수 없는 것이다¹⁰⁾.

우리 나라 주택중 최소한의 주택면적 기준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가구는 20%에도 미달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주거면적을 얼마만큼 차지하는 것이 쾌적한가 하는 문제는 학자에 따라 다소 의견이 다르지만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¹¹⁾. 그렇다면 우리 나라국민중 몇 사람이 2명 이상의 주택에서 쾌적함을 누리며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농촌주택의 94%가 10명미만의 소주택이며 도시도 76% 정도가 10명 미만의 주택이라고 한다.

한 가구의 평균 가족이 5.12인으로 계산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의 반수정도는 기준면적의 반인 1평의 넓이에 만족하고 있으며 88%가 두명 이상의 넓이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는 3~4인이 방 하나에 모여 살면서 자기 방을 가질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 移入으로 농촌은 비록 저질주택 일망정 부족율이 낮은 대신 도시는 밀리는 인구로 해서 43%가 무주택자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주택 부족량은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인구의 증가와 가구분화 노후주택의 폐기등 부족량은 예상이상으로 증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와의 住宅事情을 통계로 살펴 보자¹²⁾.

各 國 的 住 宅 統 計

국 별	년 도	총 호 수 단위 1,000호	1호 평균실수	1실 평균인원	국 별	년 도	총 호 수 단위 1,000호	1호 평균실수	1실 평균인원
美 國	1970	62,874	5.1	0.7	스 케 인	1960			
아르헨티나	60	3,727	3.1	1.3	蘇 聯	65	5,033	4.2	0.9
英 國	66	14,976	3.5	0.6	덴 마 크	65		3.0	1.3
이탈리아	61	13,031	3.3	1.1	西 獨	68		3.5	0.8
滋 州	66	3,151	5.2	0.7	日 本	68	24,197	4.1	1.4
오스트리아	70	2,442	4.2	0.9	뉴질랜드	66	716	3.7	1.1
네덜란드	60	3,130	4.9	0.8	노르웨이	60	1,075	4.9	0.7
캐나다	67	5,589	5.4	0.7	브라질	69	16,179	4.2	0.8
스위스	60	1,580	4.8	0.7	프랑스	68	15,189	4.6	1.1
스웨덴	70	3,072	3.6	0.7	벨기에	61	3,023	3.4	0.9
								4.6	0.6

UN世界統計年鑑 1972年.

이상의 數值로 볼 때 不足數는 제외하고서라도 室別 平均數值도 우리의 여건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그리고 독서의 장으로서 대표적 이라고 할 수 있는 公共 도서관수도 우리의 환경 여건으로서는 매우 낙후된 감

을 면할 수가 없다.

10) 東亞年鑑 1974年版 pp. 321~322.

11) 東亞日報 1974年 7月 6日 「내집」 없는 사람 너무 많다.

12) 世界統計年鑑 1972年

그 實例로 韓國의 文化 教育의 中心地라고 하는 서울의 도서관 시설 현황을 보면 일반인들이 利用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4개 뿐이며 私立이 4개소로 전부가 8개소 뿐이다. 이들 8개 도서관의 열람석은 千席 內에 不過하다.

6백만이 넘는 서울의 人口에 圖書館이 8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人口 75萬에 도서관이 1개소라는 믿기 어려운 비율이 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首都 비엔에는 人口 164萬에 무려 608

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한다.

이는 人口 2,700명에 1個所의 도서관이 있다는 셈이 된다. 서울과 비교할 때 75萬對 2千 7百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도서관이 歐美 諸國과 견줄 정도로 당장 증설하는 것은 어려우나 國力伸張의 밑받침이 되는 國民讀書의 場이어야 할 도서관은 새마을 운동과 함께 國民精神의 새마을화에 기여할 것이 至大함을 감안하여 早速히 증설되어야 하겠다.

世界 公共 圖書館 現 況

국 명	인 구	공공도서관수	장 서 수	1관대평균인구	일인당평균도서	년 도
한 국	31,469,132	65	1,189,955	542	0.018	1972
일 본	92,280,000	757	22,392,000	130	0.227	1965
필 리 핀	31,270,000	363	773,000	86	0.024	"
자 유 중 국	12,293,000	17	951,000	723	0.077	"
태 국	29,700,000	308	372,000	96	0.012	"
인 도	471,624,000	1,212	9,746,000	389	0.020	"
미 국	192,119,000	7,258	173,660,000	26	0.903	"
브 라 질	78,809,000	1,466	8,195,000	54	0.103	"
칠 레	8,492,000	240	1,805,000	35	0.212	"
멕시코	39,644,000	450	1,791,000	88	0.045	"
영 국	54,066,000	565	88,200,000	96	1.631	"
프 랑	8,451,000	222	3,043,000	38	0.360	"
스 웨 덴	6,610,000	2,218	18,561,000	4	2.422	"
노 르 웨 이	3,695,000	1,310	7,249,000	3	2.821	"
덴 마 크	4,720,000	1,447	13,845,000	3	2.933	"
이 스 라 엘	2,476,000	601	4,500,000	4	1.817	"
호 주	11,360,000	553	10,470,000	20	0.921	"

세계의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수와 공원면적

	한 국	영 국	불 란 서	서 독	이 태 리	스 웨 덴	미 국	일 본
도서관 소장책수 (인구천인당)	—	1,438	567	399	333	2,282	1,447	207
주요도시 공원면적 (도시인구일인당m ²)	2.5	10.0 (런던)	5.8 (파리)	14.4 (베를린)	—	—	19.0 (뉴욕)	0.9 (동경)

이상의 열거한 주택이나 공공 시설도 결국 그 나라 국민의 生活水準의 한부분인 바 生活水準의 向上이 없이는 독서환경 개선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國民生活水準과 독서生活의 向上이 없이는 여가의 시간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독서 할 시간은 言必稱 여가시간의 延長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국민소득의 증대가 生活水準을 높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독서율의 대폭 증가는 국민 소득의 증대에도 있지만 이밖에 노동운동 기술혁신 노동시간의 단축 소득의 평균화에도 크게 의존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여건은 당연히 여가시간을 創出하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 날 여가 시간중 텔레비 시청에 소비하는 시간이 태반이라 하는데 우리보다 독서율이 높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도 日本 毎日新聞社 조사에 의하면 1日 평균 텔레비의 접촉 시간은 1961년에 3시간 23분이던 것이 1970년에 4시간 19분으로 늘어났다고 한다¹⁷⁾.

이는 約 10년간에 1時間 가량이 증대된 것이다.

13) 東亞日報 1974年 8月 6日 “도서관은 증설되어야 한다.”

14) 世界統計年鑑 1972年 4월호.

15) 양 배진. 公共圖書館과 讀書運動. 1970年 9月 p. 2

16) 日本毎日新聞社編. 讀書世論調査. 1970年版

17) 前掲新聞. 1972. 8. 11 夕刊

흔히들 메스컴으로 인하여 독서율이 낮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아닐가도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텔레비전 제작자들의 편성방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생각이다. 실상 독서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도리어 메스컴이 아닐까?

존 카르메비의 著書 “라디오 텔레비 社會”學이라는 책을 보면 라디오나 텔레비의 신간 소개로 말미암아 독서의욕을 자극시키고 시청자에게 文化전반에 걸쳐 상식을 넓혀주고 오히려 관심있는 분야의 도서를 읽어 나가게끔 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날 이 點은 많은 사회학자들이 公認하고 있는 바이다¹⁸⁾.

이같은 사실을 암스텔담의 오란다 도서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란다의 텔레비가 비약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책의 판매 보급율도 종전과 비교하여 約 7%나 늘어 났다고 한다. 이같은 예는 미국의 경우 5年間に 約 30% 英國이 10年間に 50% 스웨덴이 15年間に 그전보다 3배이상 上廻하였다고 한다¹⁹⁾.

예컨대 죠지 오웰의 1984年이 텔레비에 방영됨에 英國에서 단 이틀 동안에 2萬部나 판매 되었다. 서독의 도서판매 取引조합의 조사에 의하면 1960년도 도서판매의 約 17.5%가 텔레비 시청에 기인된다고 하였다²⁰⁾.

좀 아이러니컬한 일이겠지만 자기집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생계에 다소 무리가 가는 정도라면 대체로 텔레비를 가지고 있으니 이는 사실상 독서 의욕을 자극시키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다.

6. Recreation은 독서안내를 겸하도록 해야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공중을 위한 Recreation 場所가 적은 나라도 매우 드물 것 같다. 그렇다고 하여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여건으로 보아 당장 Recreation 시설 부문에 대한 투자의 급속한 증액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차적인 시설확장과 장려를 통하여 적절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Recreation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 또는 사상적으로 불건전한 면에서 건전한 면으로 지향 발전하도록²¹⁾만드시 독서의 장이 겸비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전오락은 개개인의 인격수양 그리고 단련의 요소가 병행할 수 있어야 하겠고 여가시간의 효율화와 가족단위 Recreation이 권장되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도모하는데 Recreation과 병행한 매개적 역할과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선도문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적 사고의 바탕에서 새로운 시대감각을 호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서를 겸비한 레크레이션에 대한 관점을 열거하여 보면,

첫째 가능한한 각종 공공기관 및 메스컴 등을 통하여 반드시 여가선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제몽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둘째 공공 오락시설이 부족한 우리의 처지로서 기존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보수로서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관계기관이 권장토록 하며,

셋째 과도기적 시설부족의 보완책으로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조치로 학교 도서관 등을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활용하는 등 산학협동체제의 유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

넷째 앞으로 설치될 복지센터나 현존 문화원 같은 곳을 활용하여 국민 Recreation 센터에 단계적 설치와 활용으로 독서안내를 기하도록 할 것.

다섯째 난립되어 있는 소규모의 체육관을 레크레이션 센터화하여 국민체조를 권장함은 물론 이들에게도 독서를 자극할 수 있는 안내를 겸하여 청소년 선도의 일환으로 대처하게 한다.

여섯째 시민의 건강과 휴식은 물론 재해시의 피난처로 또는 도시 미관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공원과 녹지면적을 적정수준까지 확대하고 특히 도심지에 소규모 일지라도 아동공원을 다수 분산 시설할 必要가 있으며 여기에 휴게소 휴식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뛰어놀고 재미있는 동화 등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명량한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 등이 바람직 하다.

일곱째 이밖에 라디오 텔레비전의 도시민 위주의 프로그램 지양과 건전한 가정오락적 요소와 서명안내 신문제작에서 신간안내란의 대폭 증편 주택단지나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레크레이션 시설과 운동장소 그리고 독서시설을 소규모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여덟째 농촌 Recreation에 대해서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다. 즉 현재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농한기의 잠재실업상태를 각 부락단위로 농촌문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독서하는 풍조와 함께 과학적 영농지식을 스스로 흡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한다. 앞으로 노동시간의 단축 가사노동 등의 경감 등에 의하여 여가시간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가선용에 따르는 효율적인 독서와 레크레이션 시간이 고려되도록 국민 각자의 자각이 뒤따라야

18) チンカノレメベ. Radio and Television 社會學. 大賀正 喜 譯 白水社 刊 1963 p. 134

19) 清水英夫 現代出版學. 竹內書店刊 1972 p. 52.

20) 前掲書 同

21) 보사부. 사회개발 1970 p. 488—454.

하겠나²¹⁾. 오늘 날과 같이 여름철만 되면 과도한 시간을 캠핑이나 피서의 시간에 할애하여 자칫 낭비와 바람직하지 못한 시간을 허비하는 풍조는 우리의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서 지양되어야 한다.

7. 가정단위의 독서환경 조성

생활의 최저단위는 가정을 터전으로 하고 있음은 두 말할 것없다.

「세살부터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독서습관에 있어서는 거의 不變의 法則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간의 독서하는 분위기를 자주 형성할 때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자연 독서에 관심을 두게될 것이며 점차로 스스로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최소한 부모들은 자주 취학전 어린이라도 그들에게 정답게 지리하지 않은 짧막한 동화를 그림책 등을 통하여 들려주고 항상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일깨워 주도록 하여 책을 읽는 것이 거의 무의식적인 어린이들의 작난과 비교하여 결코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까지 꾸준히 부모들은 의식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겠다²²⁾.

취학전부터 이와 같은 가정분위기속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은 독서습관이 쉽게 몸에 배게 되어 이미 취학전에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지 못했다하더라도 國民學校를 입학한후에도 결코 늦지 않으니 이같은 지도는 배늦은 일이라하여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시기에 글자를 해독하고 새로운 사물에 많은 관심을 유발케 됨에 독서하고자 하는 의욕은 오히려 썩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나 한 학급에 7,80명에 달하는 학생수를 맡아서 가르쳐야하는 현실로는 가정단위의 지도가 절실히 요망된다.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의 좋은 독서환경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독서가 몸에 배도록 계획을 세운다면 가정에서 체득한 독서관습과 아울러 더 이상 바랄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습관에 익게되면 좀 더 나아가서 독서의 기술이 요망되는데 이는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읽지 않을때야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더 빨리 새로운 지식 정보를 받아들여야만 보다 앞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좀 더 앞서서 학습의 80~90%가 독서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속독의 기술을 익혀 짧은 시간에 많이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을 잡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현

대사회의 요청이며 불가피한 과제인 것이다.

독서의 속도가 2시간 걸렸든 것이 한시간으로 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빠를 것이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지적인 발달이나 학습능율이 높아지고 교양이 풍부해질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1분간의 속독지수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분간에 읽은 낱말수는 국민학교 4학년이 145, 5학년이 166, 6학년이 181, 중학교 2학년이 192, 고등학교 2학년이 211이다.

그런데, 이를 속독지수로 환산한 결과는 국민학교 4학년이 84, 5학년이 111, 6학년이 132, 중학교 2학년이 148, 고등학교 2학년이 180으로서, 읽은 낱말수에 대한 속독지수의 비율은 4학년이 58%, 5학년이 67%, 6학년이 72%, 고등학교 2학년이 85%이다.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읽기 속도가 빨라지고 내용 이해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이나 미국학생들의 1분간에 읽은 낱말수를 우리나라 학생들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전반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제일 적다.

학 년	국가별		
	한 국	일 본	미 국
국민학교 4학년	145	156	155
국민학교 5학년	166	168	177
국민학교 6학년	181	187	206
중 학교 2학년	192	229	237

※ (일본의 자료는 “依田” 등이, 미국의 자료는 “해리스(Harris)”가 측정 한 수치임.

그러나 이것으로 미국학생들의 읽기 속도가 제일 빠르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느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기 나라의 글자가 다르고 단 단어에 포함된 글자수가 다르고, 읽을 거리의 성질이 다르고 검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을 비교해 볼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1분간에 읽은 낱말수의 차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과 미국학생들을 비교해 볼 때 국민학교 4학년의 경우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10단어 부족한데 5학년에서는 11단어, 6학년에서는 25단어, 중학교 2학년에서는 45단어가 부족하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있어서 속독훈련이 소홀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22) 金斗弘, 對話. 크리스찬아카데미. 74年 5月號 p. 48

교 별	종별 지역별 학년별	가 형			나 형			평 균		
		도 시	농 촌	전 국	도 시	농 촌	전 국	도 시	농 촌	전 국
		국민학교	4	106 (157)	69 (128)	84 (142)	106 (168)	67 (134)	83 (148)	106 (163)
	5	130 (182)	79 (144)	110 (160)	137 (198)	94 (153)	112 (172)	134 (190)	86 (148)	111 (166)
	6	166 (225)	110 (154)	133 (182)	157 (205)	114 (163)	132 (180)	162 (215)	112 (159)	132 (181)
	평균	134 (188)	87 (143)	109 (162)	133 (190)	92 (134)	109 (167)	134 (189)	89 (147)	109 (164)
중 학교	2	148 (192)								
고 등 학교	2	180 (211)								

속독능력의 발달상황도 초, 중, 고등학교까지 공통적으로 실시한 검사 “가형”의 결과를 살펴볼 때 위의 표와 같이 속독능력은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발달하고 있다.

속독능력 발달상황

학 년	1분간의 속독지수	증(增)
국민학교 4학년	84	
국민학교 5학년	110	26
국민학교 6학년	133	23
중 학교 2학년	148	15
고등학교 2학년	180	32

그러나, 발달의 정도는 학년에 따라 매우 차가 심하다. 속독지수의 증가상황을 비교해 볼 때 국민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사이(1년간)에는 26단어가 증가하였고, 5학년에서 6학년 사이(1년간)에는 23단어가 붙어났으며, 국민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3년간)에는 15단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3년간)에는 32단어가 붙어난 셈인데, 이를 연령별로 따져 볼 때 국민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는 24.5단어가 붙어났는데 국민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는 7.2단어밖에 붙어나지 않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는 10.7단어가 붙어났다.

이를 총 평균 해보면 국민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평균 약 14단어씩 붙어난 셈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속독능력은 대체로 국민학교 상급학년 때에 가장 많이 발달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약간씩 발달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민학교 상급학년은 읽기의 이해력과 속도가 증가하는 시기이고, 중학교 이상은 읽기에 세련되는 시기」라고 한 미국의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연보의 속독능력 발달단계의 이론과 일치하고, “依田”

(일본인)가 「독서능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하나 연령에 따라 그 발달의 양상이 다르다」고 말한 것과도 합치된다.

그리고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통털어서 볼 때 속독지수로서 매년 14단어씩 증가하고 있으나, 읽은 단어수로는 10단어 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어, 이는 미국학생의 경우 매년 10단어에서 20단어까지 붙어난다는 “해리스”의 보고나 일본학생의 경우 매년 15단어 전후가 증가 한다는 “依田”의 연구결과 보다 약간 뒤떨어지는 셈이다.

속독능력의 지역차는 도시와 농촌의 국민학교 학생들의 1분간의 속독지수를 비교해 볼 때 다음 표와 같이 도시 학생들이 농촌 학생들 보다 1분간에 평균 45단어 더 많이 읽고 있다.

도시와 농촌학생의 속독능력 비교

지 역 구 분	1분간의 속독지수
도 시	134 (189)
농 촌	89 (147)

()안의 숫자는 1분간에 읽은 낱말수

바꾸어 말하면 농촌학생들은 도시학생들의 66% 속도 밖에 못 읽은 셈이된다.

그러나, 1분간에 읽은 차는 42단어로서 도시 학생들의 78%를 읽은 셈이된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농촌학생들이 도시학생들 보다 전성으로 읽는 학생이 많다는 점인데 이는 독서훈련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³⁾.

23) 경북도교육위원회. 속독훈련지침서. p. 105~1106.

8. 바람직한 독서환경

바람직한 독서환경이란 무엇보다도 독자가 독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유인해 나가도록 하여주는 총체적인 분위기를 말한다.

즉 여기에는 독자에게 읽을 시간이 주어져야하고 또한 읽고 싶은 良書가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읽을 장소가 불편없이 주어질 때에 독서 의욕은 고취될 것이다. 그리고 독자가 의무나 책임으로서 읽는 것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즉 독자가 성경을 읽는 것 法官이 판례집을 읽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독서의 효용에 대해서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독서는 즐거움을 돕고 社交 담화에서 장식용이 되고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동양의 대표적 문인인 林語堂은 독서를 하면 진실일로의 사색

으로 인해서 사람의 외모에 매력 더해지고 담화에 品位가 가해지는 것이니 독서의 목적엔 그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여하튼 우리는 독서를 통하여 인생이나 우주나 역사 등에 대하여 우리의 眼目を 넓히고 지혜로워지고 관대해지고 탐욕과 我執이 적어지고 나와 남과의 관계나와 바깥세계를 잘 알게된다.

책을 많이 읽는 지식인 혹은 교양인 이 남달리 존경을 받는 까닭은 단순히 그들이 책을 많이 읽었대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人格이 갖추어져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되 우리는 긴장된 순간과 지식신경의 자극과 허영심의 만족을 위해서 읽지 말고 자기세계의 확대와 人間자신에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처해있는 독서환경에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독서인이 되어야 하겠다.

讀書週間 有感

9月 24日 부터 30日까지 1週日間을 「讀書週間」이라고 하여 全國 도서관이 中心이 되어 讀書運動을 벌이는 것을 시초로하여 「교육주간」이니 「문화의 날」이니 하고 마치 철새처럼 매년 가을이 되면 무질한(?) 文化週間 行事가 여러 文化團體를 中心으로 實施된다.

文化는 文化를 崇尚하는 精神과 이를 꽃피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초로 하여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볼 때 이와 같이 여러 文化團體가 가을이 되면 각종 文化行事를 벌리는 것은 바로 우리 文化를 發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러나 一例로서, 讀書週間을 만들어서 책을 가까이 하라고 強調하는 것이 평소 모두가 讀書를 많이 하고 있지만 讀書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더욱 더 많은 책을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지독히도 讀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讀書週間만이라도, 1년에 단 한번만이라도 책을 가까이 해보자는 呼訴인 것 같다. 그런데 책을 가까이 해보자고 呼訴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아마 牛耳讀經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讀書週間이 되면 讀書경향이 어떠니, 독서환경이 어떠니, 도서관 시설이 어떠니 하고 떠들어 댈다.

일종의 무질한 것 같다. 그리고는 독서주간이 지나면 그동안 떠들어 댄 것들이 다만 떠든 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다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만다. 이러한 牛耳讀經이 每年 거듭되어 어언 20년이 된 모양이다.

讀書週間이 設定된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 만큼 그 成果를 거두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우나 독서를 하지 않는 우리 社會에서 讀書週間 동안만이라도 讀書를 하라고 외친 성과는 매우 크다 아니랄 수 없겠으며 社會潮流에 逆行한 그 대담한 용기 또한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데 一般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지않고 있다고 痛感하면서 그 自身은 책을 멀리하고 있는 矛盾을 갖이고 있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필자의 경우 司書의 한 사람으로서 讀書를 읽는 社會風潮를 罵倒하면서 自身 또한 그러한 社會風潮에 적극 호응하고 있음을 否認하지 못하고 있다. 몹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 司書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職業的 本質이다. 더우기 讀書週間은 圖書館인들이 設定해 놓은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인들이 中心이 되어 讀書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讀書指導를 하려면 그 누구 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이다. 책을 읽어 보지 않고서 어찌 讀書指導를 한다 할 수 있겠는가. 第20回 讀書週間을 맞아 다시 한번 反省해 본다. 이러한 反省이 다시는 뒤풀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